

# 프랑스 문화연구와 교육의 가치론적 관점

정의진\*

## I.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논문작성자가 다양한 프랑스 문화관련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제기하게 된 문제, 즉 프랑스 문화연구와 교육의 방향성이라는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이미 반세기 이상의 역사적 발전과정 속에서 세기, 장르, 작가, 주제, 작품 분석방법론 등에 따라 연구와 교육체계를 제도화한 한국대학의 프랑스 문학연구 및 교육과는 달리, 프랑스 문화라는 대주제하에 진행되는 연구 및 교육의 내용은 개별 연구자나 학과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프랑스 문화라는 영역이 포괄하고 있는 연구 및 교육의 범위는 거의 무제한에 가깝기 때문이다. 문화는 그 범위를 가장 넓게 잡을 때 문명화된 인간의 모든 지적·육체적 활동, 즉 자연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인간의 모든 인위적 행위를 의미한다. 이보다 좀 더 사람들의 통념 속에서, 그리고 대학 내에서 실제로 제도적으로 분화된 학문영역의 차원에서 문화의 범위를 설정한다고 해도, 문화는 자연과학이나 공학에 속하는 영역, 즉 ‘자연의 법칙’이나 ‘기술’에 관련된 연구와 활동을

---

\* 상명대학교

제외한 모든 영역을 의미한다. 자연의 법칙이나 기술에 대비되는 문화는 정치, 경제, 역사, 사회, 문화, 문학예술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가장 포괄적인 분류체계의 한 축이다. 여기서 사회과학분야에 해당하는 영역들을 제외한 보다 좁은 의미의 문화가 포괄하는 영역을 설정해 본다면, 이는 우리가 흔히 ‘문화적 사회’, ‘문화적 품격’, ‘문화예술’ 등의 어법으로 사용하는 문화, 즉 여전히 추상적이기는 하나 무언가 철학이나 문학예술 등으로 대표되는 어떤 상위의 정신활동, 즉 즉각적인 사회경제적 쟁점이나 이해관계로 환원할 수 없는 인간과 사회와 역사의 보다 근본적인 가치나 지향점을 질문하는 영역, 소위 ‘삶의 질’과 관련된 영역을 의미한다. 이 때 문화는 인간의 모든 사회적 활동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분석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보다 직접적으로 윤리적인 영역, 그리고 인간의 일차적인 물질적 욕구를 상회하여 그것의 질을 따지는 미적 영역으로 간주된다. 우리가 ‘문화적 감각’ 내지 ‘미적 감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문화는 즉자적인 필요성을 넘어서는 감각, 즉 삶과 사물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도 구체적인 감수성, 보다 밀도 높은 구성을 지향하는 태도 등을 의미한다. 문화라는 용어를 규정하는 다양한 관점과 방법론 및 보다 세분화된 문제의식들이 있으며, 차후의 논지전개과정에서 이를 필요에 따라서 도입하겠지만, 우선 문화를 위와 같이 가장 일반론적인 차원, 즉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와 좁은 의미에서의 문화, 그리고 그것의 가치지향성 여부에 따라서만 분류해 보아도, 문화연구와 교육은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매우 막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문화연구와 교육의 대상과 목표라는 일반론적인 문제에 더하여, 그것이 프랑스 문화라는 특정국가 특정사회의 문화에 관련될 때 문제는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프랑스에 대한 모든 것을 학습하는 것은 심지어 프랑스인에게도 불가능한 것이라면, 프랑스 문화의 특수성과 보편성 및 그 가치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서 어떤 주제를 취사선택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취사선택의 문제는, 한편으로는 연구와 교육의 필요성

이나 가치를 가진 주제들을 선택하는 문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용자의 입장, 즉 프랑스 문화를 자국의 문화가 아니라 타문화로서 학습하는 학생들의 입장과도 연관되어 있다. 특수성의 차원에서든 보편성의 차원에서든, 프랑스 문화에 대한 교육과 학습이 오늘날 한국의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와 필요성을 가지고 수용되는가라는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는 것이다. 과거의 프랑스어문학 전공학생들과 오늘날의 한국 학생들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그 차이의 핵심은 한국의 대학생 세대들에게서 갈수록 얹어지는 ‘서구 콤플렉스’이다. 파리에 배낭여행이나 어학연수를 와서 일고의 머뭇거림도 없이 ‘지하철이 왜 이렇게 더러워.’, ‘와이파이 정말 안 터지네.’라는 말을 무심히 내뱉는 한국학생들을 쉽게 보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이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백화점 일층을 점령하고 있는 프랑스제 화장품과 명품, 전통문화와 20세기적인 문화가 공존하는 파리의 독특한 매력, 남프랑스의 자연, 문화와 예술의 나라는 일종의 문화적 ‘클리셰’ 등이 여전히 한국 학생들의 의식 속에서 작동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다. 각종 언론매체에 미국에 이은 유럽 발 경제위기에 대한 보도가 근 2년여에 걸쳐, 특히 최근 일 년여 기간 동안 2-3일이 멀다하고 등장한 것은, 한국학생들의 프랑스와 유럽 사회에 대한 비판적 상대화 경향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우월해 보이던 유럽과 프랑스, 특히 그 문화적 위용 때문에 더 많은 동경을 자아내던 프랑스의 이미지는, 근 30년에 걸쳐서 실업률 8-10%라는 상황을 끌고 온 프랑스의 현실적인 사회상황은 차치하더라도, 이미 2000년대에 들어서 한국에서도 상당히 기운 것이 사실이다. 결국 교육윤리적인 차원에서든 현실적인 상황변화의 차원에서든, 학생들에게 한국사회가 여전히 필요로 하는 프랑스 사회와 문화의 역사적으로 축적된 장점들과 더불어, 프랑스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보다 객관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막연한 문화적 이미지로서의 프랑스가 아니라 현실로서의 프랑스라는 기초 하에, 프랑스

문화의 장점과 가치 또한 새롭게 재구성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본 논문은, 우선 현재 한국대학의 프랑스 문화연구와 교육의 일반적인 상황을 문명, 문화, 가치라는 개념으로 간략하게 점검한 후, 문화연구에 관련된 영미와 프랑스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서 프랑스 문화연구에 있어서 가치론적 관점의 필요성에 대해 논할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프랑스 문화의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전 지구적인 대중적 문화 환경과 가치론적 지향성 사이의 긴장관계에 대해 서술한 후, 이에 대한 인식이 한국 대학의 프랑스 문화연구와 교육에 있어서도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를 서술할 것이다.

## Ⅱ. 문명(civilisation), 문화(culture), 가치

포괄적인 의미에서 프랑스 문화를 주제로 한 강의라고 하더라도, 어떤 교재나 자료가 채택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 실제적인 교육내용의 차이가 드러난다. 우선 ‘프랑스 문화’ 혹은 ‘프랑스 사회와 문화’ 등의 주제 하에 채택될 수 있는, 처음부터 수업교재용으로 만들어진 프랑스어 교재들을 살펴보면, 이는 곧 프랑스 사회 전체를 전 영역에 걸쳐서 요약 소개하는 성격의 책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프랑스어 교재 전문출판사인 Clé International의 프랑스 사회문화 교재인 *Civilisation progressive du français* 나 *Civilisation en dialogue* 혹은 *La France d’aujourd’hui* 등을 살펴보면, 프랑스의 지리, 행정, 정치, 사회, 국제관계, 유럽연합 내에서 프랑스의 역할과 위상, 일상생활, 문화와 예술, 여가와 오락 등의 대 주제 하에 다시 세분화된 하위주제들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프랑스인들의 삶을 규정하는 거의 모든 사회문화적 조건들을 다루고 있다.<sup>1)</sup> 즉 현재 프랑스어

---

1) Catherine Carlo, Mariella Causa, *Civilisation progressive du français avec 400 activités : niveau débutant*, Clé International, 2010. Ross Steele, *Civilisation progressive du français avec 400 activités : niveau intermédiaire*, Clé International, 2004. Odile

의 일상적인 용법상, 이 주제들은 ‘문화(culture)’로 특화된 교재들이 아니라,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인간의 모든 인위적이고 의식적인 활동들을 지칭하는 ‘문명(civilisation)’ 교재에 해당한다.<sup>2)</sup> 이러한 성격의 책들은 한국의 프랑스 문학과 문화 전공자들에 의해서도 이미 여러 권이 출간되었으며, 그 기획 의도를 읽어보면 일차적으로 전공 저학년 내지 교양 수업에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sup>3)</sup> 이러한 교재들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전혀 낮은 타국의 문화를 포괄적으로 개괄하면서 그 특징과 다면성을 제시하는 것은, 전공과 비전공을 막론하고 프랑스를 이해하고자 하는 학생들, 나아가 일반인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일종의 나침반이다. 그러나 이러한 프랑스 사회문화 교육은 전공으로 심화되기 이전 상태의 일반교양 차원을 벗어나기 힘들다. 설사 그 서술 심도가 깊다고 하더라도, 프랑스 문학과 문화관련 학과가 이를 매개로 대학의 전공과정에 부합하는 어떤 심화된 방향성을 설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층위가 다른 문제이다. 이 문제를 굳이 세분화하여 사고해보기 이전

---

Grand-Clément, *Civilisation en dialogue : niveau intermédiaire*, Clé International, 2008. 다른 어학교재들과 마찬가지로 이 프랑스 사회문화 교재들은 동일한 제목 하에 초급과 중급, 혹은 초급, 중급, 고급 등의 수준이 다른 교재들로 세분화되는데, 그 주제와 성격에 있어서는 동일하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서지는 생략한다.

- 2) culture의 라틴어 어원인 cultura가 애초에 농경활동 및 종교적 제의 행위를 지칭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역사적으로 그 의미가 다양하게 변화하여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반면 civilisation이라는 용어는 프랑스어와 영어에서 18세기 후반부터 서서히 일반화되기 시작하며, 따라서 그 사용맥락에 따라 culture와 유사한 의미로 혼용되거나 문명이라는 의미로 특화되는 것도 그 이후의 일이다. 문화와 문명의 개념사를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현재까지, 특히 프랑스, 독일, 영미, 이탈리아의 서로 다른 역사적 변화경로를 중심으로 서술한 책으로는, 외르크 피쉬, 안삼환 역,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1 : 문명과 문화』, 푸른역사, 2010 참조.
- 3) 그 성격과 서술 수준에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를 출간 연도순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고봉만 외, 『프랑스 문화예술, 악의 꽃에서 샤넬 No.5 까지』, 한길사, 2001. 샤를르 드비쉬 & 장마리 퐁티에, 김형길 외 역, 『프랑스 사회와 문화 I, II』,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서울대학교 불어문화권연구소, 『프랑스, 하나 그리고 여럿』, 강, 2004. 로렌스 와일리·장 프랑수아 브리에르, 손주경 역, 『프렌치 프랑스』,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7. 한택수, 『프랑스 문화교양강의 18』, 김영사, 2008. 이 가운데 『프렌치 프랑스』의 경우 비교문화적인 관점, 즉 미국인 연구자들이 미국문화의 관점에서 프랑스 문화를 비판적으로 상대화하여 서술하였다는 점에서, 차후 한국 연구자들의 프랑스 문화 서술에도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하리라고 판단된다.

단계에서라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학문분야 분류체계와 연관 지어 생각해보면 당장 문제는 선명해진다. 프랑스 어문학과에서 프랑스 문화학자로 전환한 학과들의 경우, 그 상당수가 과거의 단과대학 분류 체계에 따라 어문대학 내지 인문대학이나 문과대학에 소속되어 있지만, 한국연구재단의 분류체계는 이 학과들을 ‘지역학’, 즉 사회과학대학 소속으로 간주할 수 있는 영역으로 분류한다.

그런데 ‘프랑스 사회문화’에서 ‘사회’자를 뺀 제목을 가진 강의, 즉 ‘프랑스 문화’라는 제목의 강의에서는, 특히 교양수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문학과 예술 및 사상 등을 중심으로 한 협의의 문화개념에 입각한 수업들 또한 많이 개설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어의 일상적 용법에서도 문화라는 용어가 다의성을 가지기 때문에 발생하겠지만, 문화가 특히 그 앞에 ‘프랑스’라는 수식어를 다는 순간, 상당수 학생들의 기대지평 속에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문학예술과 패션, 미용, 요리 등으로 이해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프랑스 혁명이나 68혁명으로 대변되는 자유와 저항의 나라라는 프랑스의 이미지도, 상대적으로 소수의 학생들에게서나마 일정한 기대지평으로 작용하고 있다.<sup>4)</sup> 이러한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할만한 프랑스어 교재를 찾아 본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은 알고 있겠지만, 다수의 Civilisation 교재들이 이미 프랑스어로도 한국어로도 출판되어 있는 반면에, Culture라는 제목 하에 문학예술 내지 문화예술, 혹은 문화예술과 사상이라는 협의의 의미에 입각하여 작성된 프랑스어 교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무엇보다도 현재 프랑스의 문화교육제도 및 대학입시제도 전반의 현실, 나아가 이를 근저에서 받치고 있는 프랑스의 문화교육정

4) 이러한 현상의 근저에서는, 프랑스의 역대정부가 오랜 기간 동안 외무부와 문화부 등을 중심으로 정책적으로 주도면밀하게 전 세계에 안착시킨 프랑스의 이미지, 최근 유행하는 용어로 ‘브랜딩’로서의 ‘국가이미지’가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작용하고 있다. 학생들의 프랑스 문화수업에 대한 기대지평을 존중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교육적으로 인지시키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기대지평에 부응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프랑스 문화교육의 관점과 내용을 주체적으로 재구성할 필요 또한 있을 것이다.

책과 맞물려 있다. 여러 차례 교과과정과 대학입시제도의 변화를 거치면서, 오늘날 프랑스의 문화교육은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왔으며, 입시제도 또한 그에 조응하며 대학의 학과 또한 그러하다. 즉 공통과목인 문학을 제외하면, 고등학생들은 대학입시에서 문화예술을 시험과목으로 선택할 때 음악, 미술, 영화, 예술사 등으로 세분하여 선택하지 문화로 뭉뚱그려서 선택하지 않는다. 즉 개별 문화예술에 관련된 다양한 수준의 교재들은 많지만, 문화라는 제목의 교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용, 패션, 요리 등 실용 문화와 예술을 동시에 다루는 교재 또한 존재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제도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프랑스에서도 한국에서도 전자는 일차적으로 ‘기술·직업교육’의 영역이지 예술교육의 영역은 아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세분화되지 않은 기대지평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강의자는 각자의 지식과 경험에 입각한 교안을 만들 수밖에 없다. 프랑스 문학수업의 거의 제도화된 과목별 교과과정과 비교할 때, 문화수업의 내용구성과 방향설정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그렇다면 소위 순수 예술, 예술과 연동되어 있는 실용문화, 사상 등을 포괄하는 연구교육의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 한 모델이 프랑스가 아니라 영미권의 대학들에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1960년대를 기점으로 영국에서 출발하여 1990년대에 이르면 미국에서도 하나의 학문적 유행이 되다시피 했고, 여러 대학들에서 단과대학 내지 학과, 혹은 학제 간 연구 영역으로 제도화된 ‘문화연구(Cultural Studies)’가 그것이다.<sup>5)</sup> 알려져 있다시피 문화연구는 영미권의 연구자들이 ‘반문화(counter-culture)’라고 명명했던 1960-70년대의 대중

5) 영미권의 문화연구는 한국에서도 1990년대에 계간지 『문화과학』 및 출판사 ‘현실문화연구’ 등을 매개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바 있고, 그 전통은 현재까지 한국의 영미어문학학 문화학과와 관련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안토니 이스트호프, 임상훈 역, 『문학에서 문화연구로』, 현대미학사, 1994’나, ‘스튜어트 홀 외, 전효관 외 역, 『현대성과 현대문화』, 현실문화연구, 1996’ 등 문화연구에서 일종의 교재 역할을 한 책들이 다수 번역되었다. 현재 계간지 『문화과학』은 지령 71호를 발간하면서 유지되고 있고, 문화이론 관련 저서와 번역서들의 신간 출판도 꾸준한 편이다.

문화현상, 대표적으로 록음악의 정치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함의와 그것의 막대한 대중적 영향력 등에 주목하면서, 이후 다양한 문학예술 및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연구방법론으로 발전해 나갔다. 그런데 문화연구가 포괄하는 영역이, 문화연구에서 통용되는 다소 이분법적인 분류에 따르자면 정통 문학, 미술, 고전음악, 무용 등의 소위 전통적인 ‘엘리트 문화’와, 영화, 대중음악, 뮤직비디오, 게임 등의 소위 ‘메스 켄추어, 나아가 정치, 사회, 경제 영역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문화를 모두 포괄하게 되면서 연구 대상의 범위가 갈수록 모호해진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문화연구는 다른 학문 분야들에 비해 개별 연구자나 연구 집단의 관심사와 관점에 따라서 그 대상과 방법론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것이 사실이다. 가령 주 4번에서 인용한 스튜어트 홀 등의 공동저서 『현대성과 현대문화』는, 실제로 필진의 다수가 사회학자들이다.<sup>6)</sup> 반면 안토니 이스트호프의 『문학에서 문화연구로』는,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적어도 연구대상은 한정된 의미의 문학과 문화이다.

그런데 그 연구경향에서 상대적으로 사회과학적인 관점과 주제가 두드러지든, 아니면 구조주의를 기점으로 한 프랑스의 다양한 언어학, 문학이론, 현대철학 등을 방법론으로 차용하면서 연구 분야에 있어서도 한정된 의미의 문화현상에 집중하는 것이든, 적어도 문화이론 일반이 공유하는 대전제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우선 문화이론은 문화적 가치들의 역사적 가변성을 강조한다. 즉 과거에 문화적 가치로 인정받던 것들, 문화예술 분야에서 가치의 위계질서를 형성하던 문화에 대한 관점들은 역사적으로 변화해 왔으며, 이러한 가치의 변화과정은 특히 19세기 서구의 근대화와 민주주의적 이념의 사회정치적 제도화를 계기로 가속화 되었다는 것이다. 이스트호프의 『문학연구에서 문화연구로』는 전통적인 문화적 가치의 중

---

6) 이 책의 목차만을 일별해 보아도 이는 금방 드러난다. <1장 : 계몽주의와 사회과학의 탄생>, <2장 : 현대 국가의 발전>, <3장 : 경제의 출현>, <4장 : 변화하는 사회구조 : 계급과 성>, <5장 : 현대사회의 문화적 형성>, <6장 : 서양과 그 외의 사회들, 담론과 권력>이 그것이다.



핵이었던 문학적 가치의 위계질서가 해체되는 과정,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이분법이 해체되는 과정, 그리고 포괄적인 의미의 다양한 현대 대중문화를 기초로 문학연구와 문화연구를 동시에 재구성할 필요성 등을 제기하고 있다.<sup>7)</sup>

위와 같은 문화연구의 문제의식은, 우선 그 연구대상과 방법론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변화과정과 이에 수반되는 문화적 가치의 위계질서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이를 문학연구 및 여타 대중문화 연구에 접목시키는 작업으로 요약될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 사회경제론, 그리고 선험적 가치의 문제를 방법론적으로 배제한 후 우선적으로 사회문화적 현상의 작동 시스템을 분석하는 프랑스의 구조주의적 연구경향이 문화연구의 형성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은, 영미 문화연구의 문화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는 기본 단서이다. 이를 보다 직접적인 가치론의 관점에서 이해해본다면, 초기 문화이론의 가치론적 관점은 문화에 대한 ‘민주주의적’ 관점, 즉 엘리트주의에 비판적인 대중 민주주의적 관점이다.<sup>8)</sup> 문화연구는 역사적으로 축적된 정통문학과 예술의 위상을 대중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해체하면서, 기존의 고급예술과 대중문화를 다원론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동등하게 취급하는 관점을 취한다.

7) 『문학에서 문화연구로』의 각 대단위 장의 목차만 일별해 보면, <제1장 : 문학연구 패러다임을 무너뜨리기>, <제2장 : 고급문화/대중문화>, <제3장 :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하여>이다.

8) 영미문화연구는 소수 엘리트 대 다수 대중이라는 기본적인 대립구도를 넘어서 이후 연구 영역을 확장하고 세분해 나갔다. 가치의 위계질서에 대한 전복적 사유라는 관점에서 문화연구에 유입된 푸코, 들뢰즈, 데리다 등의 프랑스 현대철학은, 1980-90년대에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미국의 소위 ‘하위문화(sub-culture)’ 연구, 즉 성적,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소수자들에 대한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서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었던 에드워드 사이드로 대변되는 ‘오리엔탈리즘’ 연구, 즉 문화적 주변부로 전락한 비서구권 문화에 대한 서구인들의 문화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역사화 하여 재구성하는 연구 또한 영미문화연구의 포괄적인 가치론적 지향점을 공유하고 있다. ‘고급문화/대중문화’의 대립구도에서의 대중과는 달리, 하위문화의 주체들은 양적으로 다수가 아니라 소수이다. 그러나 그 문화의 주체가 양적으로 다수이든 소수이든, 주류 엘리트내지 집단의 이해관계와 가치관에 입각한 문화의 위계를 비판하는 문화연구의 기본관점은 대중문화연구에서든 하위문화연구에서든 동일하다. 그러나 ‘문화적 소수자’는 ‘대중’ 가운데서도 소수라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훨씬 더 복합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이 때 문학과 예술은 다양한 문화현상들 중 하나, 연구대상의 동등한 하위범주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문화연구의 기본관점은 특정 문화 영역에 추상적이고 선험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권위주의적이고 비역사적인 문화관을 제어하고, 문화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사회 속에서 수용되고 작동하며 변화하는 역사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해명할 수 있다는 일정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문화연구는 현재 이러한 연구방법론을 기초로, 현대적인 사회문화적 주체의 형성이라는 고유의 가치론적 지향점에 연구를 집중시키고 있다.<sup>9)</sup> 따라서 문화연구 자체의 역사적인 변화발전과정, 그 연구 주체의 다양성 등을 요약해서 단순화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만, 문화의 가치라는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연구가 제기한 현대적인 문화민주주의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화민주주의의 문제는, 특히 프랑스 문화의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이다. 19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까지 미테랑의 사회당 집권기의 문화정책의 한 축은 다름 아닌 문화의 민주화였다. 이를 정책적으로 주도한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사회당 집권기 문화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자크 랑이다. 물론 문화민주주의라는 화두 자체는 초대 문화부 장관 앙드레 말로까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사회당 집권기 이전의 문화민주주의는, 엘리트 문화로 간주되던 소위 ‘고급’문학예술에의 접근과 수용 가능성을 일반 시민, 즉 대중 전체로 확산시키는 것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기존의 프랑스 문화정책의 기조는 사회당 집권기에 더욱 강화된다. 다양한 관객 지원 제도, 각 급 학교에서 예술교육의 강화, 초등학교 과정에서 예술교육의 기초의무교육 지정 등은, 선언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정투입과 교육프로그램의 수립·집행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

9)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문화연구계도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문화연구계의 축적된 연구 성과와 개인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문화교육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논문으로는, 심광현, 「교육 개혁과 문화교육 운동 : 지식기반 사회에서 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문화과학』 27호, 문화과학사, 2001, 15-49 쪽 참조. 이 논문 이외에도 심광현은 유사한 주제로 여러 논문을 발표하였다.

자크 시라크의 우파정부 하에서도 또한 계승되고 강화되었다.<sup>10)</sup> 그러나 사회당 집권기의 문화민주주의의는 기존의 프랑스 문화정책 노선과는 다른 또 하나의 방향성을 지향하게 되는데, 사회적 통념상으로는 제도적 위상에 있어서 예술로 간주되지 않던 문화영역들을 예술로 격상시키는 정책이 그것이다. 패션, 대중음악, 요리 등에 문화부 장관이 공식연설을 통해 ‘아트’의 위상을 부여하는 일이 한동안 연중행사처럼 반복되었다. 자크 랑이 문화부 장관에 취임한 직후 조직한 ‘음악축제(Fête de La Musique)’가, 고전음악과 대중음악, 서구음악과 제3세계 음악을 가리지 않고 모두 동등하게 거리에서 향유되도록 기획된 것은, 사회당의 문화민주주의 정책의 또 다른 방향성을 예고하는 서곡이었다.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이러한 문화민주주의 정책은 현대사회의 가치관의 다원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전통적인 문화적 가치의 위계질서로 사회를 조직하고 통합하는 것이 갈수록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비속한 것, 잡스러운 것, 경박한 것이라는 표현대신 ‘서로 다른 것’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 즉 고전음악과 대중음악은 서로 다른 종류의 음악일 뿐이며, 요리는 음악이나 미술과는 다른 종류의 예술이며, 패션이나 산업디자인은 실용적 성격이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일종의 예술이라는 인식, 혹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다 편하고 현실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한편으로는 엘리트 문화와 대중문화,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로 분류되던 영역과 실용적인 기술로 분류되던 영역 사이의 장벽을 제거하는 것, 시민 대중의 모든 잠재적이고 현실적인 문화적 역량과 활동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이를 통해 프랑스 사회에 새로운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는 것 등 사회당의 새로운 문화민주주의 정책의 목표는, 변화된 20세기 후반의 문화현실에 비추어볼 때 충분히 납득 가능한 일면이 있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우파

10) 이하 프랑스 문화정책의 역사에 대한 일반적인 개괄, 그리고 좌우 정권교체 과정에서 프랑스의 문화정책과 문화교육상에서 발생한 좀 더 구체적인 변화와 우여곡절에 대해서는, Philippe Poirrier, *L'État et la culture en France au XXe siècle*, Librairie Générale française, Coll.«Le Livre de Poche», 2000과, Pierre Moulinier, *Les Politiques publiques de la culture en france*, PUF, Coll.«Que sais-je?», 1999 참조.

엘리트들과 정치가들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좌파적 지향점을 가진 지식인들과 문화예술인들 사이에서도 사회당의 새로운 문화민주주의 정책에 비판과 우려를 표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 또한 사실이다. 소위 문화적 다원성에 입각한 민주주의라는 것이, 실은 문화의 핵심적인 사회적 가치, 특히 20세기 현대 문학예술 영역의 핵심가치로 자리 잡은 창조적인 실험성과 사회비판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분명히 실용문화 내지 실용예술과 소위 순수문학 예술은, 각자의 특수한 변화발전과정 속에서 상호 삼투하는 과정 또한 겪어 왔다. 기존의 전통적인 문학 예술적 가치와 위계질서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소위 순수 문학예술은 변화된 현실에 발맞추어 ‘비예술적인’ 것으로 간주되던 일상적인 생활문화와 풍속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재해석하였다. 문학적인 가치를 가진 소재나 주제가 아니라고 간주된 모든 사회적인 일상들을 문학적으로 재해석하고 재구성한 19세기의 플로베르나 발자크, 보들레르, 광고나 영화 등 소위 상업적 대중문화를 현대적 이미지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차용한 초현실주의자들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2차 대전 후 독일 바우하우스의 경우, 회화, 사진, 건축, 디자인 등 영역에 따라서 문제의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미학이념상의 대립으로 결별에까지 이른 내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건축과 디자인에 있어서 대중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에 입각한 독자적인 미학적 스타일을 제시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는 혁명기의 소비에트 아방가르드들 또한 마찬가지이다.<sup>11)</sup> 반대로 패션이나 디자인 등 실용예술이나, 전면적으로 상업적인 영역인 오늘날의 광고가 순수예술의 축적된 성과와 새로운 흐름을 항시적으로

11) 문학예술이 변화하는 현실을 수용하는 과정은, 종종 이에 대한 첨예한 비판의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단순히 ‘수용’으로 간주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문학예술은 현실에 대한 자유롭고 비판적인 문제제기 및 내외부의 토론과 논쟁을 통해, 결과적으로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가장 생산적인 파급효과를 유발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적어도 오늘날 영미권과 유럽의 예술교육은 이 점을 철저하게 의식한 바탕 위에서 수행되고 있다.

참조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sup>12)</sup> 그러나 이러한 생산적인 상호작용은, 양자를 특별한 기준도 없이 막연하게 문화나 예술이라는 공통의 용어로 동일시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인정할 때 실질적으로 발생한다. 만약 모든 것의 가치가 동등하다면, 과연 문화적 가치, 혹은 예술적 가치의 핵심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위의 질문과 관련하여, 우리는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1 : 문명과 문화』의 다음과 같은 외르크 피쉬의 입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독일인 학자의 저서이기는 하지만, 프랑스 사회당과 유사한 문화 민주주의적 정책과 강령을 채택했던 역사를 가진 독일 사회민주당의 문화정책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외르크 피쉬의 입장에도 반영되어 있다.

만약 문화가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면, 이 가치의 등급도 필연적으로 생겨날 것이다. 모든 문화가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은 문화로부터 그 독특한 가치를 박탈하는 일이 될 터이고, 문화를 다시금 자연의 한 구성요소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 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화폐 제도는 도입하려고 하면서도 그 양을 규정하는 단위를 확정 짓는 일은 거부하는 행위와 흡사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각각 사용되는 척도들이 절대적이라거나 강제적인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문화’를 위한 척도들이 상대적이라는 인식은 특히 20세기에 이르러 점점 더 확산되었다. 하지만 이 인식도 ‘문화’가 가치 개념이라는 사실을 제거할 수는 없다. 누군가가 척도의 상대성에 대해 인식한 나머지 판단을 자제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동등성의 주장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늘 불충분하고 부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불가결한 척도의 딜레마를 통해서 이 개념은 역동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sup>13)</sup>

---

12) 단적인 예로 초현실주의 이미지론 및 회화와 영화, 기 드보르(Guy Debord)의 급진적인 자본주의 소비사회 비판과 그의 영화작업 등은, 역설적으로 광고 산업분야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차용되었다. 살바도르 달리가 말년에 미국에서 광고전문가로 엄청난 돈을 번 것은, 예술적인 관점에서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당시의 광고수준에서 보자면 창조적인 이미지와 편집리듬을 광고에 도입한 덕택이었다. 물론 이에 대한 예술 윤리적 차원의 비판과 논쟁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문화적 가치의 척도에 절대적이고 강제적인 성격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오늘날 명백하게 반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을 뿐더러, 웬만한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의 문화상대주의 내지는 문화민주주의가, 문화가 근본적으로 가치개념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거나 부정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때, 그 궁극적인 결말은 문화 자체의 소멸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외르크 피쉬는 피력하고 있다. 사회당의 문화민주주의 정책을 놓고 프랑스 내에서 ‘문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넘어서 비난 수준의 평가까지 제기되었을 때, 이를 단순히 반민주적인 시대착오적 보수주의, 엘리트주의의 잔재 등으로 곧바로 환원해버리기에는 석연치 않은 여운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르크 피쉬가 제안하는 현대적인 문화적 가치의 역설적인 방법론적 척도, 즉 <늘 불충분하고 부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불가결한 척도의 딜레마>를 통해서, 문화적 다원성과 문화적 가치 양자에 생산적인 변증법적 긴장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양적 민주주의’를 넘어 ‘질적 민주주의’로 이행해나가는 데 필요한 역동적인 척도 하나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가치로서의 문화가 반민주적인 문화 엘리트주의의 유사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의 진일보를 의미하는 방향으로 문화 정책과 문화교육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오늘날 영미권과 한국의 문화연구도, 이론 형성 초창기의 개념적 대립구도였던 ‘고급문화/대중문화’의 이분법을 보다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차원에서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연구가, 그 이론적 전제인 문화민주주의의 저변에 깔린 ‘대중문화론’의 ‘양적인’ 성격을 어떤 이론적·실천적 경로를 통해서 변증법적으로 지양할 수 있는가는 여전히 실험중인 과제인 것 같다. 게다가 문화연구의 실천적인 미덕 가운데 하나는, 현재 형성 중이고 진행 중인 대중문화현상들에 우선적으로 주목하고

13) 외르크 피쉬, 안삼환 역,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1 : 문명과 문화』, 앞의 책, 16 쪽.

이러한 현상들과 함께하면서, ‘대중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가치를 모색하는 것이다. 결국 외르크 피쉬 같은 연구자의 입장으로 대변되는 문화가치론적인 경향과, 대중문화에 적극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그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는 문화연구의 입장은, 문화민주주의와 문화가치론이 동시에 함께 가야 한다는 원론은 공유할지라도, 현실적으로는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상호비판과 논쟁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화가치론 또한 사회경제적인 역사적 변동 상황으로부터 문화적 가치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화가치론은 상대적인 차원에서나마 존재하는 문화적 ‘현실’이 아니라 문화의 질적인 재구성을 지향하는 ‘윤리’에 입각해 있다. 즉 즉각적인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환원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문화의 ‘높은 질적 가치’를 옹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외르크 피쉬의 문화적 가치의 역사적 발전경로에 대한 입장을 인용하자면, <이런 논쟁이 이 개념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간다. 따라서 온 인류가 통일적인 척도에 합의하지 못하는 한, 이 개념은 논쟁적 개념, 파당적 개념임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sup>14)</sup>

### Ⅲ. 프랑스 문화사 연구의 가치론적 지향성

영미권의 문화연구와 일종의 등가관계에 놓일만한 프랑스의 문화연구는, 여러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산발적이고 개별적인 형태로 진행되던 연구 상황을 넘어서, 1990년대 중후반에야 비교적 체계화된 형태로 등장한다. 예를 들어 장-피에르 리우와 장-프랑수와 시리넬리의 주도로 1997-1998년에 총4권으로 출간 완료된 『프랑스문화사 *Histoire culturelle de la France*』는 프랑스 문화연구의 학문적인 성과를 대표하는 저작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sup>15)</sup> 그런데 이 책의 제목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14) 같은 책, 17 쪽

프랑스의 문화연구는 특히 ‘문화사(histoire culturelle)’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인 재구성이 시도되고 있다. 개별 문화예술 영역에서 프랑스만큼 활발하게 연구와 저술 및 출판이 진행되는 나라도 드물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종합하는 연구 작업의 주체가 우선은 역사학자들이라는 것은 분명 다소 특이한 프랑스적 연구 상황일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역사학의 20세기적인 발전과정에 대해 일정한 지식이 있는 연구자라면, 이러한 프랑스의 문화연구 상황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소위 시대정신으로 대변되는 거대이념 내지 담론들 및 이에 연동된 커다란 역사적 사건 중심의 역사연구와 병행하여, 마르크 블로흐와 뤼시앙 페브르 등의 ‘아날학파(Les Annales)’로 대변되는 프랑스의 역사연구는 이미 1930년대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회, 문화, 풍속사를 연구하는 ‘미시사’의 길을 텃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페르낭 브로델, 조르주 뒤비 등의 다음 세대 역사학자들로 대표되는 ‘심성사(histoire des mentalités)’ 연구는, 역사학의 연구영역 안으로 개별적·사회적 차원의 심리적 요소, 즉 ‘감성’의 문제를 도입했다. 19세기 프랑스사 연구에 있어서 스탕달, 발자크, 플로베르, 조르주 상드 등의 소설과 에세이, 나아가 보들레르 같은 시인의 작품과 예술 평론이 중요한 참고자료로 인용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프랑스 역사학이 문학작품들을 핵심 사료들 중 하나로 간주하는 태도가 일찍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프랑스 역사학자들 중 상당수는, 가령 페르낭 브로델의 ‘장기지속’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차원에서의 구조적인 역사적 변동, 즉 마르크스주의적인 역사연구 방법론을 동시에 활용하였다. 거기에 더해서 미셸 푸코가 묻혀 있던 다양한 사료들을 기초로 비판적으로 재구성한 역사적 ‘에피스테메(épistémè)’, 즉 각 시대의 사회적 인식과 가치관 및 제도가 지배 권력을 매개로 사회적 통합과 배제의 기능을 수행하는 메커니즘을

---

15) *Histoire culturelle de la France*, tome1-4, dir. de Jean-Pierre Rioux et Jean-François Sirinelli, Seuil, 1997-1998. 이 연구는 프랑스사의 전시기를 다루고 있으며, 20세기 프랑스 문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장-피에르 리우와 장-프랑수아 시리넬리가 책임 집필한 제4권이다.



담론의 사회역사적인 총체적 구성이라는 관점에서 해명한 연구 또한 프랑스 역사학의 중요한 방법론적 참조사항으로 자리 잡았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프랑스 역사학은 연구대상의 포괄범위와 세분화, 연구의 기본관점 및 방법론 등에 있어서 영미문화연구가 수행하고 있던 작업들을 주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이미 역사적으로 축적하고 있었다.<sup>16)</sup>

프랑스사 전체를 문화사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오늘날 프랑스의 문화연구는 분명히 장기적으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이는 아직은 실험적인 작업으로 보인다. 프랑스 문화사 연구의 주된 연구대상은 영미문화연구와 마찬가지로 특히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까지의 프랑스 문화이며, 그 주제 또한 ‘ 지배문화/민중문화’, ‘고급문화/대중문화’, ‘기술과 미디어’, ‘인터넷’, ‘게임 산업’ 등 상당 부분 겹친다. 신문과 서적 및 각종 인쇄물, 라디오, 축음기, 영화 등 다양한 활자, 음성, 영상 매체의 광범위한 대중적 보급과 활용에 힘입어 급속하게 변화해나간 20세기 전반기의 새로운 문화적 지형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구조화되다시피 한 미국 대중문화의 영향력, 텔레비전의 상용화, 인터넷의 보급 등이 20세기 후반기에 야기한 변화상황에 프랑스도 동일하게 놓여있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프랑스문화사』의 마지막 권인 제4권, 즉 20세기 프랑스 문화사의 제목은 『대중의 시대 *Le Temps des masses*』이다.<sup>17)</sup> 이 제목은 사실 20세기 프랑스문화사가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등 20세기 주요 자본

16) 프랑스 문화연구의 문화사적 관점과 방법론 및 쟁점 등을 그 역사적인 기원에서부터 간략하게 정리한 책으로는, Pascal Ory, *Histoire culturelle*, PUF, Coll.«Que sais-je?», 2004 참조. 물론 영미문화연구계의 상당 수 연구자들에게 또 다른 중요한 참조사항인 발터 벤야민, 아도르노 등의 프랑크푸르트 학파 및 미국대학에서 연구 활동을 지속한 한나 아렌트 같은 독일 사상가들까지를 프랑스 역사학계가 전반적으로 포괄하고 있었는가 는 또 다른 문제이다. 그러나 적어도 파시즘, 인종주의, 유대인 대학살, 이민과 다문화 등을 연구하는 프랑스의 20세기 현대사 전공자들에게 발터 벤야민, 아도르노, 한나 아렌트 등은 전혀 낯선 이름이 아니다.

17) Jean-Pierre Rioux, Jean-François Sirinelli, *Histoire culturelle de la France-4 : Le temps des masses*, Seuil, Coll.«Points», 2004(1998). 이하 20세기 프랑스 문화사의 연구 관점 및 주제에 관련된 개괄적인 내용은 상당부분 이 책을 참조하였다.

주의 국가의 문화사를 서술하기 위한 책의 제목으로 삼아도 무방한 지극히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제목이다. 별도의 20세기 프랑스문화적인 특수성을 발견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이 제목은, 가령 『프랑스문화사』 제3권인 18-19세기 문화사의 제목 『계몽주의와 자유 *Lumières et liberté*』와 뚜렷이 대비된다.<sup>18)</sup> 이 제목 하에 18-19세기 서구문화사를 포괄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거기에는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과 공화주의 혁명으로 대변되는, 프랑스가 주도했고 우선적으로 프랑스에 깊숙이 뿌리내린 사회문화적 이념과 가치가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다. 역으로 생각해보자면, 서구에서 출발하여 전 지구적으로 확산된 다양한 대중적 심급의 문화가, 프랑스에 국한되는 특수한 문화적 현상보다 더 크게 20세기 프랑스문화를 규정하고 있다고 장-피에르 리우와 장-프랑수와 시리넬리는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프랑스 문화, 특히 오늘날의 프랑스 문화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입장에서 장-피에르 리우와 장-프랑수와 시리넬리의 이러한 선택은 그 자체로 토론의 대상일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대 프랑스 문화 연구 및 교육의 대상과 주제들 중 상당수는 사실 현대 미국문화나 한국문화의 그것들과 겹칠 수밖에 없으며, 게다가 그 공통주제들은 부차적인 것들이 아니라 핵심적인 것들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1895년 세계최초로 영화를 발명하여 상영한 이들은 프랑스인 뤼미에르 형제이지만, 영화라는 대중문화적인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이다. 영화사 초기 흑백무성영화의 기술적이고 예술적인 특수성과 대중적인 문화적 수용양상을 보다 구체화하여 연구하고 교육한다고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보편적인 영화학과 영화사 및 영화문화의 문제이지 프랑스적인 현상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동일한 영상 문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의 활용도와 콘텐츠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영화나 텔레비전 등과의 비교를 불허하는 오늘날의 전 지구적인 인터넷 문화의 보편성에 이르면, 프랑스 문화의 특수성을

---

18) Antoine de Baecque, Françoise Mélonio, *Histoire culturelle de la France-3 : Lumières et Liberté*, Seuil, Coll.«Points», 2004(1998).

보편적인 차원에서 규정하는 대중 문화적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콘텐츠들이 유통되고 선택되느냐라는 문제 못지않게, 인터넷이라는 공동의 미디어 자체가 전대중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문화적 변화를 유도하고 습관을 형성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장-피에르 리우와 장-프랑수아 시리넬리가 20세기 프랑스 문화를 ‘대중의 시대’라고 규정하는 것에는 일정한 프랑수아적 특수성이 작용하고 있다. 이 책의 1부 「종교중립화, 대중화, 분열 laïcisations, massification, sécession」은 프랑스 공화주의 혁명의 진행과정에서 관철된 자코뱅주의, 즉 다른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역사와 비교해보아도 두드러지는 프랑스의 ‘보편주의’적 정치문화를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사회 계급적 차이와 종교적·문화적 차이를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관철되는 민주 공화주의의 통합적 가치라는 이념은, 현실에서는 종종 개인이나 특정 사회 집단의 질적 특수성을 소거한 ‘양적인’ 기준점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즉 국가적 차원의 법적·제도적 ‘대중화(massification)’의 원칙은 ‘몰 개성화’의 경향을 피하기 힘들다. 샤토브리앙 같은 프랑스 혁명기의 작가들뿐만이 아니라 플로베르나 보들레르에서 상징주의적인 경향의 작가들에 이르기까지 19세기 후반-20세기 초 프랑스 문학사를 대표하는 상당 수 작가들에게서 지속적으로 ‘반민주주의적인’ 경향이 발견되는 이유는, 이들이 민주주의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민화’를 조장하는 양면성을 가진 이념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진화한 현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극히 반동적인 이러한 태도는, 그러나 당대의 현실에서는 추상적인 민주주의자들보다 훨씬 냉철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한 것일 때도 많았다.<sup>19)</sup> 부르봉

19) 역사적 형성기의 프랑스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작가들의 비판적인 태도를, 가령 왕당파와 같은 직접적인 정치적 결사체나 정치세력의 이데올로기나 실천과 동일시 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이들 작가들의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다 진화된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을 역으로 재발견하는 것이 더 생산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피에르 리우는 『프랑스문화사-4 : 대중의 시대』에서 프랑스의 소위 ‘세기말(fin-de-siècle)’ 작가들과 예술가들의 정치적이고 예술적인 경향과 작업들을 <데카당스와 모더니티 Décadence

왕조에서 자코뱅, 나폴레옹 집권기, 제2제정기 등 체제와 역사를 가로지르며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을 통해서 보편적 정책을 관철하는 전통에 기초한 프랑스의 현대 민주주의는, 다양한 개인과 집단들의 특수성을 ‘자유’의 이념에 입각하여 ‘사적인 영역’에서 보장하는 방식으로 방임하였다. 이러한 중앙집권적이고 보편주의적인 정치문화에 기초하여, 현재 프랑스는 이민 정책에 있어서도 영미권이나 캐나다 및 호주나 뉴질랜드 등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e)’와는 다른 ‘동화주의(intégrisme)’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종교와 문화상의 차이를 인정하되, 이는 사적 영역에서의 자유의 문제이지 공적 차원의 통합기준은 아닌 것이다.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조정되지 않는 특수하고 질적인 가치들은, 결국 보편성과 ‘분리(sécession)’되어 각자 고립된 폐쇄적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즉 ‘폐쇄적인 공동체주의(communautarisme)’가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일반화된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대중의 시대’라는 얼핏 매우 일반적이고 평이해 보이는 제목과는 달리, 장-피에르 리우와 장-프랑수와 시리넬리의 20세기 프랑스문화사는 전 지구적인 차원의 보편적인 문화현상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프랑스 문화의 20세기적인 전개양상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20세기 프랑스 문화에 있어서 ‘대중화’는, 개개인들의 질적인 가치와 지향점들이 각자가 선택하거나 속한 고립된 공동체 안으로 위축되는 현상을 동시에 수반하였다. 이는 문화예술적인 차원에서는 전통적인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생산적인 상호긴장관계를 차단시키거나,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는 종교적 갈등이나 인종주의, 사회적 불평등 등의 문제를 고립과 대립 속에서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이 프랑스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을 의식하지 못했다거나 해결

---

et modernité>, <상징주의의 응전과 아르누보 Le défi symboliste et l'Art nouveau> 등 별도의 소제목 하에 서술하고 있다. Cf. Jean-Pierre Rioux, Jean-François Sirinelli, *Histoire culturelle de la France-4 : Le temps des masses*, op.cit., p.67-90.

책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예술적인 차원에서의 정책과 교육 이외에도, 프랑스 정부, 나아가 지방분권화가 진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문화유산(patrimoine)’ 보존 및 교육정책, 그리고 역사적 ‘기억(mémoire)’의 문제를 정책의 기본윤리로 설정하고 연구와 교육역량을 강화하는데 점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였다. 프랑스 공통의 문화적 유산과 역사적 기억을 보존하고 재교육하는 것, 윤리적인 차원에서는 프랑스의 제국주의적이고 인종주의적인 역사적 과오나 독일점령기의 부역자 문제 등을 교육하는 것을 통해 프랑스 정부는 사회적 통합을 꾀하였으나, 리우와 시리넬리가 판단하기에 그 결과는 프랑스의 정치문화에서 비롯된 사회문화적인 약점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즉 문화유산 보존이나 역사적 기억의 문제를 가령 다양한 역사적 뿌리를 가진 이민자들의 문화로 세분화하여 재정적, 교육적으로 지원한 결과는, 다문화에 대한 정책적인 조정원칙이 빈약한 프랑스의 정치풍토에서는 오히려 폐쇄적인 공동체주의와 갈등을 조장하고 강화시키는 부정적 양상 또한 수반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리우와 시리넬리의 진단은, 사회적으로 부당한 차별대우가 갈수록 고착화된 프랑스의 특정 사회집단이나 공동체, 특히 도시 외곽지역의 청년 실업자들의 저항이나 이슬람 공동체의 불만을 ‘사회적 문젯거리’ 정도로 치부하게 만드는 의미론적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 즉 프랑스의 획일적인 보편주의 정책도 문제이지만 폐쇄적인 공동체주의도 문제라는 식의 양비론적 비판으로 이해될 소지를 이들의 진단은 상당 부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자신의 분석에만 입각하더라도 프랑스의 폐쇄적인 공동체주의는 프랑스의 중앙집권적 보편주의 정치문화의 결과이지 그 자체로 원인은 아니다. 또한 이민이나 실업 및 종교 같은 사회문제와는 달리, 문화예술에 관련된 정책은 국가가 과도하게 통합적인 조정자 역할을 자임할 경우 예술의 비판적 창의성을 질식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제기하는 질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문화적 기준,

즉 프랑스 내의 이질적인 문화들을 분리와 고립이 아니라 역동적인 소통과 활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질적 기준, 앞서 2장에서 언급한 외르크 피쉬의 용어를 다시 빌리자면, ‘척도의 딜레마’를 적극 개선할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분명 타당해 보인다.<sup>20)</sup>

#### IV. 프랑스 문화의 특수성에 대한 연구

프랑스의 문화연구가 역사학자들의 새로운 문화사 연구를 통해 종합되고는 있지만, 이들이 문화의 그 모든 방대한 분야, 즉 문명과 문화예술을 모두 심도 깊게 다루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프랑스 문화사 연구자들의 작업에서 두드러지는 미덕은, 프랑스 문화 전체의 거시적인 역사적 상호작용과 변동 양상을, 공화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보편주의, 종교중립성 등 이를 규정하는 사회정치적 이념 및 정책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선명하게 부각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사적인 관점에서 프랑스역사 전체를 재 서술한다는 이들의 야심찬 기획은, 서술의 논리적 일관성을 사회정치적인 시대적 이념과 정책을 따라 확보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거시적인 이념사와 문명사의 경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즉 구체적인 각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축적된 연구결과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였다. 이를 통해 진전된 최근의

20) 프랑스의 문화민주화 정책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인 결산은 오늘날 프랑스의 여러 논자들의 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장-미셸 지앙은 주로 1980-2000년대의 프랑스 문화정책과 그 결과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미셸 슈나이더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 한다: <문화를 민주화한다는 것, 그것은 민주주의와 문화 양자를 변질시키지 않으면서 유지하는 것, ‘문화’를 ‘민주화하다’ 동사의 직접목적보어로 만들 경우 대립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Démocratiser la culture, c’est maintenir chacun des termes démocratie et culture sans les dénaturer et reconnaître qu’il y a antinomie lorsqu’on fait de culture le complément d’objet direct du verbe démocratiser>, Jean-Michel Djian, *Politique culturelle : la fin d’un mythe*, Gallimard, Coll.«folio-actuel», 2005, p.111. 즉 문화와 민주주의 사이에 질적인 변증법적 긴장이 유지될 때 진정한 문화민주주의는 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연구결과는 2010년 출간된 『현대 프랑스문화사 사전 *Dictionnaire d'histoire culturelle de la France contemporaine*』으로 집대성되었다.<sup>21)</sup> 이 사전이 현대 프랑스의 문화현상을 총괄하고 있는 한, 사전의 많은 항목들, 특히 20세기 대중문화와 기술문화 및 미디어에 관련된 항목들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그 서술의 초점이 프랑스의 특수한 문화적 현상뿐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일반적 현상에 맞추어져 있다. 오늘날의 환경문제 및 환경운동 등에 관련된 서술 또한 전 지구적인 보편적 위기의식에 입각해서 서술될 수밖에 없다. 도시화에 대한 항목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사전에는 분명히 프랑스 문화의 특수한 측면들을 반영하고 있는 서술 양상내지 항목들이 동시에 존재한다. 프랑스 문화의 상대적인 특수성에 대한 서술 양상을,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 사전은 많은 다른 나라들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일종의 모델 역할을 한 프랑스의 문화정책에 관련된 항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여기에는 프랑스 내의 문화정책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중문화의 전 지구적 독점 양상에 대항하여 프랑스가 프랑스어권 국제기구와 유네스코 등을 통하여 주도한 국제적인 문화정책에 관련된 항목들이 포함된다. 즉 유럽과 여타 대륙의 많은 국가들에서 법률적·정책적인 문화적 표준으로 확립된 ‘문화적 예외(exception culturelle)’, ‘문화적 중 다원성’ 등에 관련된 항목이 그것이다. 역으로 ‘미국화(américanisation)’, ‘반미주의(antiaméricanisme)’ 등의 항목은 미국 대중문화의 프랑스 침투현상과 이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정서적 반발심, 즉 프랑스인들의 미국에 대한 양가적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둘째, 이 사전은 포괄적으로 보자면 ‘문명’과 동의어로 쓰인 문화적 관점에 의해 서술되었지만, 협의의 문화개념인 ‘문화예술’에 대한 서술비중이 매우 높고 그 항목 또한 세분화된 편이다. 이는 우선 문화에 대한 다양한

---

21) *Dictionnaire d'histoire culturelle de la France contemporaine*, dir. de Christian Delporte, Jean-Yves Mollier, Jean-François sirinelli, PUF, 2010.

정의들 가운데, 문화를 문학예술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어느 나라보다도 대중적인 프랑스적 문화상황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이 사전의 편찬을 주도한 문화사가들 자신이, 다양한 생활문화나 대중문화를 연구하면서도 이를 곧 ‘문학예술’이라는 상대적으로 특수한 질적 가치와 직접적인 등가관계로 놓는 것에 비판적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즉 프랑스의 문화사가들이 문화전체에서 문학예술의 비중을 높게 두는 것은, 좁게는 프랑스적인 문화적 특수성, 넓게는 유럽적인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 이 사전에는 상대적으로 특수한 프랑스적 문화현상에 대한 항목들도 포함되어 있다. 가령 ‘씨네필(cinéphile)’ 같은 항목을 예로 들 수 있다. 오늘날 씨네필이라는 프랑스어는 한국에서도 일반화된 용어이지만, 영화전문잡지와 예술실험영화 전용관들을 중심으로 수준 높은 영화문화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더불어 실질적인 대중문화로 자리 잡은 나라는 그리 많지 않으며, 특히 프랑스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독보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페스티발(festival)’, ‘축제(fêtes)’ 등도, 이미 한국도 이를 여러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고는 있지만, 진정한 대중적 문화로 프랑스만큼 정착된 단계는 아니다. ‘만화(bande-dessinée)’같은 항목들도, 프랑스 만화문야의 다양성과 대중성, 산업적 차원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대중문화의 차원을 넘어 프랑스적인 특수한 문화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생활문화 차원에서 ‘포도주(vin)’같은 항목은 당연히 프랑스 문화사전의 필수 서술항목일 것이다. ‘패션(modes)’ 항목에도 이에 대한 역사적 서술과 더불어 프랑스의 유명 디자이너들의 작업 경향이 서술되어 있다. ‘정원 가꾸기(jardinage)’같은 항목은, 다른 나라의 현대문화사전에서도 필수 서술 항목으로 선택되리라고 쉽게 기대할 수 있는 항목은 아니다. 그러나 20세기 프랑스의 특수한 문화현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세분화를 이 사전에서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 각 문화영역의 서적들을 별도로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사전으로 대표되는 프랑스의 문화연구가 광범위한 대중 문화현상과 협의의 문학예술을 모두 포괄하면서도, ‘문화사’라는 역사적 관점과 문화의 ‘질적 가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동시에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전의 서술항목에는 주의를 요하는 항목들이 있다. 가령 이 사전은 ‘아카데미즘’과 ‘아방가르드’를 분리서술하지 않고, ‘아방가르드-아카데미즘(Avant-garde, académisme)’으로 한 항목으로 묶어서 서술하고 있다. 즉 20세기 전반기 예술적 아방가르드들의 아카데미즘에 대한 격렬한 비판과 부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거시적인 역사적 관점에서 이를 다시 비판적으로 회고해보면, 이러한 예술적 전위들의 작업은 전시대의 아카데미즘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이해 불가능하며, 역설적으로 아카데미즘이라는 ‘기준점’과의 긴장관계 안에서 가능했던 측면도 있다는 점을 동시에 서술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러한 결합 항목에 반영되어 있다. 이는 동시에 아방가르드들에 의해 다소간 회화화되고 단순화된 문학 예술적 전통들의 일정한 복원작업들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세기말(fins de siècle)’, ‘노스탈지(nostalgie)’ 등의 항목은 현대의 사상과 문학예술 및 문화현상에서 ‘과거지향성’이 가지는 퇴행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것의 역설적인 현대성 또한 부각시키고 있다. 20세기 대중민주주의사회에서 갈수록 위협받고 있는 가치 지향적 문화와 심각한 개인주의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이러한 항목들에서 집중 부각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전에 반영된 프랑스 문화연구의 가치론적 지향성을 꼭 과거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관련된 항목에서만 찾을 필요는 없다. 이러한 비판적 관점은 ‘모더니티, 모더니즘(modernité, modernisme)’같이 19-20세기 문화예술의 새로운 가치에 대한 지향을 반영하는 항목, ‘혁신(innovations)’과 같이 스펀터의 새로운 자본주의 경제 이념에서 출발한 20세기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이데올로기이자 가치를 다루는 항목 등에도 고루 스며있다. 나아가 ‘폐쇄적 공동체주의(communautarisme)’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e)’

를 하나로 묶어서 서술한 의도는, 정책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정치와 문화가 밀접하게 결합되고 혼재된 오늘날 프랑스의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두드러진다. 앞 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문제는 정책적 효율성의 문제인 동시에 가치의 문제이기도 하다.

## V. 나오는 말

문화일반과 프랑스 문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연구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본 논문은 프랑스 문화연구와 교육의 목표와 대상이라는 문제를 문화의 질적 가치와 오늘날의 다원화된 현대 민주주의 사이의 변증법적 긴장과 상호작용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논문 작성자는 특히 프랑스 문화연구와 교육이 오늘날의 변화된 사회상황과 문화상황을 역사적 관점에서 새롭게 반영하면서도, 동시에 그 가치론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이러한 기본 관점과 서술내용은 아직은 원론적이고 규범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각 대학 프랑스 문학 및 문화관련 학과들의 서로 다른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좀 더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사고해 보는 것은 또 다른 작업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역으로, 그와 같은 후속작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과연 표준적인 한 두 개의 모델이 제시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인 판단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한 회의의 근본원인은,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개별 대학 개별 학과들의 프랑스문화교육이 서로 상이한 목표 하에 구상되고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문학을 중심으로 하되 특히 이미지 예술교육을 도입할 필요성하에 문화교육을 도입한 학과들의 경우, 문화교육이 의미하는 바는 곧 미술이나 영화 등에 대한 교육인 경우가 많다. ‘프랑스 대중문화’라는 제목의 강좌를 개설한 경우, 이러한 문화교육은 영역의 문제라기보다

는 가치론적으로 다른 층위에 놓여 있는 대중문화를 교육할 필요성 하에 수행되는 것이다. 한편 취업과 사회진출에 보다 직접적이고 실용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프랑스 및 붙어권 지역의 사회문화 교육을 강화하는 경우, 이는 ‘문명’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동일한 프랑스문화학과라 하더라도, 그 학과의 교육중심이 문화예술인지 사회문화인지, 아니면 양자를 적절히 혼합하는 방향을 취할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문화교육의 비중이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보자면, 프랑스어문학과라는 명칭내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학과들의 경우, 문화교육을 도입할 때 어떤 문화교육을 어떤 필요성 하에 어떤 비중으로, 문학교육과의 어떤 유기적 관련성 하에 도입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항시적으로 제기되는 듯하다. 이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각 학교와 학과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위에서 제기한 문제들 중 복수의 문제들을, 다수의 프랑스 문학 및 문화 관련 학과들이 동시에 고민하는 것이 아마도 현재의 상황인 듯하다. 이러한 현재적 상황에서 상대적이거나 표준적인 프랑스 문화교육모델을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겠는가라는 회의가 앞서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문화를 협의의 문화예술로 정의하고 연구·교육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원론적 입장 정도는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프랑스 문화교육이 그 가치론적 지향과 목표를 소홀히 한다면, 이는 실용적인 차원에서도 자승자박의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항상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분명한 문화적 가치론의 관점에서, 각 학과의 상황과 목표에 맞추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문제의식이 넓어지고 심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과목들을 ‘나열식’이 아니라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수준별’로 조직하는 것이, 보다 많은 프랑스 문학 및 문화학과 학생들의 좀 더 목적의식적인 진로선택을 돕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이 논문 작성자의 기본 입장이다. 특히 프랑스 문화교육을 현실과 접목시키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각의 개별 교과 강의에서, 혹은

별도의 교과목으로, 그 대상이 미술이든 영화이든 음악이든 대중문화이든 그러한 문화예술이 탄생하고 전개되는 사회역사적인 현실적 콘텍스트를 항상 체계적으로 동시에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가치론적 교육을 지향하되, 교육되는 가치의 성격이 비역사적이고 추상적인 도덕주의적 원칙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경계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봉만 외, 『프랑스 문화예술, 악의 꽃에서 샤넬 No.5 까지』, 한길사, 2001.
- 서울대학교 불어문화권연구소, 『프랑스, 하나 그리고 여럿』, 강, 2004.
- 심광현, 「교육 개혁과 문화교육 운동 : 지식기반 사회에서 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문화과학』 27호, 문화과학사, 2001, 15-49쪽.
- 한택수, 『프랑스 문화교양강의 18』, 김영사, 2008.
- 로렌스 와일리·장 프랑수아 브리에르, 손주경 역, 『프렌치 프랑스』,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7.
- 샤를르 드바쉬 & 장마리 폰티에, 김형길 외 역, 『프랑스 사회와 문화 I, II』,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 스튜어트 홀 외, 전효관 외 역, 『현대성과 현대문화』, 현실문화연구, 1996.
- 안토니 이스트호프, 임상훈 역, 『문학에서 문화연구로』, 현대미학사, 1994.
- 외르크 피쉬, 안삼환 역,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1 : 문명과 문화』, 푸른역사, 2010.
- Antoine de Baecque, Mélonio (Françoise), *Histoire culturelle de la France-3 : Lumières et Liberté*, Seuil, Coll.«Points», 2004(1998).
- Catherine Carlo, Mariella Causa, *Civilisation progressive du français avec 400 activité : niveau débutant*, Clé International, 2010.
- Christian Delporte, Jean-Yves Mollier, Jean-François Sirinelli, dir. de, *Dictionnaire d'histoire culturelle de la France contemporaine*, PUF, 2010.
- Jean-Michel Djian, *Politique culturelle : la fin d'un mythe*, Gallimard, Coll.«folio-actuel», 2005.
- Odile Grand-Clément, *Civilisation en dialogue : niveau intermédiaire*, Clé International, 2008.
- Pierre Moulinier, *Les Politiques publiques de la culture en France*, PUF, Coll.«Que sais-je?», 1999.
- Pascal Ory, *Histoire culturelle*, Paris, PUF, Coll.«Que sais-je?», 2004.
- Philippe Poirrier, *L'État et la culture en France au XXe siècle*, Librairie Générale française, Coll.«Le Livre de Poche», 2000.
- Jean-Pierre Rioux, Jean-François Sirinelli, *Histoire culturelle de la France-4 : Le temps des masses*, Seuil, Coll.«Points», 2004(1998).
- Ross Steele, *Civilisation progressive du français avec 400 activité : niveau intermédiaire*, Paris, Clé International, 2004.

## Un point de vue qualitatif pour la recherche et l'enseignement de la culture française

Jung, Eui-Jin

Préciser l'objet et le but de la recherche et l'enseignement de la culture française est un travail plutôt gênant, d'abord à cause des différents points de vue sur la culture. Selon une conception la plus large sur la culture, elle contient toutes les activités artificielles de l'être humain qui se libèrent de l'état naturel. Dans ce cas, elle est synonyme de civilisation. Selon une autre conception la plus étroite sur la culture, elle désigne les activités littéraires, artistiques et philosophiques qui visent directement le problème de la valeur et de l'éthique. Quant à la recherche et l'enseignement universitaire de la culture française, il se divise en général en deux domaines : ceux de la civilisation française qui contient tous les éventails de la condition de la vie sociales française, et ceux de la culture française au sens de l'art et la littérature français, ou au sens un peu plus large, ceux de la culture quotidienne française comme la mode, la gastronomie, etc.

Néanmoins, la culture, historiquement parlant, est une notion qualitative qui représente des activités humaines les plus spirituelles, et c'est pourquoi elle signifie souvent même aujourd'hui d'abord l'art et la littérature. Or la politique culturelle française à partir des années 80 pour la démocratisation de la culture, tend à donner des valeurs égales et indifférenciées aux activités culturelles artistiques et utilitaires qui n'ont pas de même valeur et critère pour leurs travaux. Les réactions critiques sur la politique de la démocratisation culturelle se surgissaient en France, parce que telle politique culturelle puisse provoquer, dans le pire cas, la disparition de la haute valeur même de la culture, malgré sa bonne intention démocratique. Il vaut mieux

garder le critère qualitatif de la culture, non pas seulement pour la culture, mais aussi pour faire avancer la nouvelle démocratie qualitative.

Parmi les nouveaux domaines des études universitaires spécifiées sur la culture, les ‘études culturelles(cultural studies)’ anglo-américaines à partir des années 60 sont le pionnier. Sur la base de l’opposition entre la culture d’élite et la culture de masse, elles ont tenté de repenser les nouvelles situations culturelles modernes et contemporaines. Les nouvelles études sur la culture en France, se sont organisées par les historiens de l’histoire culturelle à partir des années 90. Elles enveloppent presque tous les domaines de la sciences humaine, mais en même temps maintiennent la problématique de la qualité culturelle, donnent le statut important à l’art et la littérature. Quant à la spécificité de la culture française contemporaine, l’histoire culturelle s’occupe aussi des phénomènes culturels universels comme le média et l’internet qui s’élargissent de plus en plus dans les sociétés contemporaines du monde. Pour l’enseignement de la culture française dans les universités coréennes, il est aussi nécessaire de penser à la fois le critère qualitatif de la culture, son contexte et changement historique, et sa validité sociale.

열쇠어: 문화, 문명, 프랑스 문화, 가치, 문화연구, 문화사, 문화정책  
culture, civilisation, culture française, valeur, études culturelles,  
histoire culturelle, politique culturelle

투고일 : 2012.10.30 / 심사일 : 2012.11.30 / 심사완료일 : 2012.12.10